

간화선은 인류정신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행

제3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 간화선 실참 이후 선원장과 문담 봉화 축서사 무여스님과 외국인학자 문담 지상중계

제3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학자들이 공주 마곡사에서 간화선 실참 이후 7월 2일 문경 봉암사와 봉화 축서사, 3일 충주 석종사에서 선원장 스님들과 문담을 통해 화두선 실참의 의식을 풀었다. 문담자리에는 외국인 교수 및 참가자 33명을 포함해 63명의 수행자가 선원장 스님들에게 실참하며 느낀 의문점과 간화선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7월 2일 축서사에서 진행된 문담은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인환 스님의 소개 인사와 함께 무여 스님의 간화선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무여 스님은 간화선 화두참구로 인해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민 스님(미 햄프서대 교수)이 통역했다.



7월 2일 열린 봉화 축서사에서의 대담현장. 무여 스님(오른쪽쪽 중앙)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간화선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지도했다.

무여 스님 : 부처님께서 <열반경>을 통해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더 어렵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참선문중에서는 활구참선을 만나기가 더 더욱 어렵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외국에서 활동하는 여러 학자들이 화두참선을 만나기도, 또 이를 연구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좋은 인연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흔히 화두선의 과정을 은산철벽의 과정에 비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님께서 수행하신 나름의 과정을 들려주십시오.
(제니퍼 에이호먼, 모레이비엔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싶은 내용은 간화선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그 질 것이 아니라 깊게 깊게 실참실구해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이 화두를 통해 느껴 보시란 것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화두선의 핵심은 화두에 의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의정은 간절하고 성실성의 것 해야 하며 끊임없이 일으켜야 합니다.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면 참으로 의정이 동반합니다. 화두에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 없이 미적지근한 의정을 가지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미적지근합니다. 의정은 간절하게, 아주 절실하게 안해서는 안 될 것처럼, 꼭 해야 될 것처럼 간절하게 일으켜야 합니다.

화두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쳐도 좋은 것이 간화선인 것입니다.

그 절실함을 옛 어른들은 며칠 굶은 사람이 밥 생각하듯이, 목 큰 사람이 물 생각하듯이, 늘 엄마똥안에 놀던 아이가 집나간 엄마를 생각하듯이 절실하게 성심 성의껏 애쓰다 보면 참으로 진의가 돈발 합니다. 진의가 돈발 하자마자 그때부터 용맹정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맹정진이란 화두를 한 순간도 놓지 않고 애쓰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화두는 점점 순숙이 돼서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말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든 여여하게 들리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간화선을 실참실구해 진수를 체험하시고 간화선의 최상승법, 최고의 법임을 꼭 느끼신다면 여러분 각자에게도 참으로 보람된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때도 멈추지 말고 더 용맹심을 내서 애쓰고 애쓰다보면 진정한 의심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심덩어리가 자기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타성 일편이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늦추지 말고 애쓰고 애쓰다보면 시절연인이 도래해 타파하게 됩니다.

이 것은 바로 인류 정신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멈추지 말고 더 용맹심을 내서 애쓰고 애쓰다보면 진정한 의심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심덩어리가 자기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타성 일편이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늦추지 말고 애쓰고 애쓰다보면 시절연인이 도래해 타파하게 됩니다.

그런 인류의 고민과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것이 간화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두선은 체힘없는 일원반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체힘 만이 화두선을 이여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사위는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때도 멈추지 말고 더 용맹심을 내서 애쓰고 애쓰다보면 진정한 의심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심덩어리가 자기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타성 일편이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늦추지 말고 애쓰고 애쓰다보면 시절연인이 도래해 타파하게 됩니다.

옛날에 어느 스님께서 깨치고 나서 사흘을 춘추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사흘간 춘을 춘다고 하십니까. 하는 사람에 따라 사흘간, 혹은 삼십 일간 춘을 춘 수 있는 것이 화두선인 것입니다.

7-17일간의 정진을 했습니다. 그러고난 뒤에는 '뉘가'를 자꾸 하려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쉬라고 하셨는데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어찌 해야 하

는지요?
(레이밍 린, 옥스포드대)

현대인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책을 보고 지식을 쌓아 지금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 알음알이로 만족한 생활을 하다가 그걸 버리고 순수성을 찾아 나섰으며 오직 화두선이라는 진실성을 찾기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음먹기 따라 얼마든지 비울수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잡스러운 생각이 나자마자 그 나는 곳을 향해 열려 화

를 쟁기세요. 그러면 번뇌망상은 이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져 어떤 일이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화두입니다. 순간적으로 안 되는 것 같더라도 화두에 지극한 마음을 가지면 자기를 상당히 다스릴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목마른 사람 물 생각 하듯 화두 의정 간절·절실해야 체힘없는 행복의 맛 몰라 의정 안하면 선지식 진단 받아

- 복이 있다는 것과 간화선 수행하는 것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요?
(오렌 해너, 델라비브대)

간화선에 복과 해가 다 구족되어 있습니다. 간화선 수행자는 복해를 너무 따지지 마십시오. 오직 화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관건으로 삼으십시오. 화두가 오는 때, 부처님 같은 복과 지혜가 함께 오는 것을 믿고 오직 화두에만 몰두하십시오.

그러나 화두 한다면서 복에만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일수록 화두에 더 애쓰고 애써야 합니다.

발심이 안 된 상태에서 복을 운운하는 것은 복도 갖추기 어렵고 화두도 쥐기 어렵습니다. 화두선은 복해가 구족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한 화두를 잡고 수행을 하니, 화두에 대한 의심이 완전히 해결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화두를 억지로 더 집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화두를 탐구해야 하는지요?
(로버트 버스웰, 불교학술원 명예원장)

화두에 의정이 안 나는 사람일수록 얼른 선지식을 찾으십시오. 그런 상태가 되는 분은 자신을 점검하기가 어렵고 스스로 구령 덩어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선지식에게 자기의 병통을 진단받아 확실한 공부를 지어 가야 합니다. 깨치고 못 깨쳤느냐는 선지식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 선가에서 의심을 작게 가지면 작은 깨달음을 얻고, 크게 가지면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대혜종고스님도 18가지의 깨달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니퍼 에이호먼, 모레이비엔데)

깨달음, 즉 확철대오는 오직 하나 뿐입니다. 뒷산의 정상은 오직 한 곳 뿐입니다. 여러 번 깨졌다 하는 분들도 팔부능선에 올

라갈 때는 팔부 능선에서 깨졌다 하고, 구부능선에서는 구부능선에서 깨졌다 합니다. 능선마다에서 깨침은 깨치지 못한 것을 깨쳤다고 생각할 따름입니다. 그것은 깨침의 용어를 쓰지 말고 좀 맑아졌다, 밝아졌다라는 표현을 쓰면 맞을 것입니다. 깨침은 오직 상봉 하나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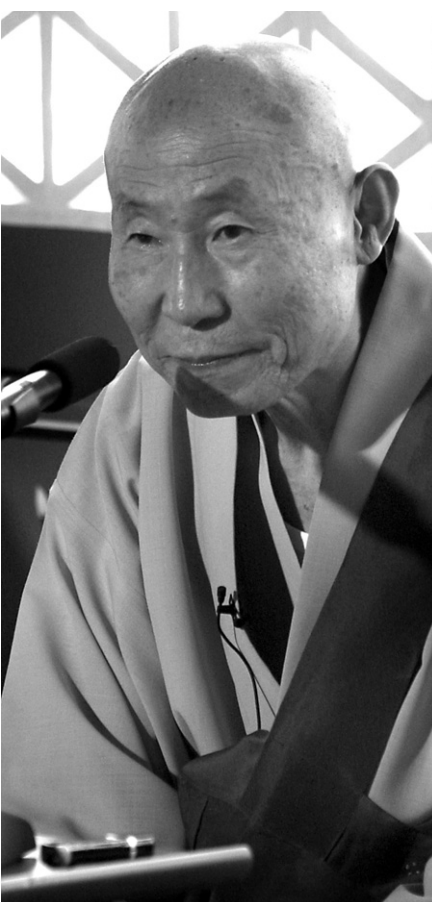
-확철대오 후에도 좌선을 합니까? 그리고 한다면 왜 해야 합니까?
(마크 슈마허, 프리랜서)

그것은 학자님이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치고도 늘 선정에 드셨습니다. 선정에 드는 자체가 행복이고 보람이며 인간으로서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정이며 깨치고 나서도 즐기고 닦는 길입니다. 학자님께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 많은 한국의 스님들께서는 화두의 정의를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자리'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화두를 방편 삼아 '깨쳐야 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무여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화두는 무엇입니까?
(해민 스님, 햄프서대)

둘 다입니다. 이는 옛 어른스님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 화두는 아주 심오한 말씀으로 어떤 생각이나 분별심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화두는 늘 의정을 일으켜 깨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봉화 축서사 / 글·사진=김은희 (맑은소리 맑은나라 대표)



봉화 축서사 주지 무여 스님



이날 문담에는 60여명의 수행자들이 참여했다.

www.gounsa.net

천년 술향기와 함께하는 고운사 여름수련회 (어린이, 중·고생, 일반)

천년 소나무 향이 가득한 청정도량 고운사에서 일상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나는 여름 고운사로 가자 어린이 수련회

- 일 시: 2012년 7월 27일 ~ 29일 (2박 3일)
- 참가비: 오만원
- 대 상: 초등학생 누구나

What is the Buddha? 중·고생 영어수련회

- 일 시: 2012년 8월 3일~5일 (2박 3일)
- 참가비: 칠만원
- 준비물: 세면도구, 여벌 옷, 운동화 및 개인용품

천년 술향기와 함께하는 일반 여름 수련회

- 일 시: 1차 수련회 (8월 6일~8일) 2차 수련회 (8월 9일~11일) 3차 수련회 (8월 12일~14일)
- 참가비: 일십만원
- 준비물: 세면도구, 개인용품

장 소: 고운사 선체험관
 참가신청: 고운사 홈페이지, 이메일- gounsa44@hanmail.net
 참가문의: 고운사 중무소 054)833-6933, 833-2324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김문화(海月) 직점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고성능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배-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무선 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법당전용 스피커

·일반 마이크 V-620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